

#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적 인식론 연구

## - 마니교의 이원론과 키케로의 회의주의를 중심으로 -

김이레 (성균관대 교육철학 석사과정)

### 초록

본 연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적 인식론을 연구하되, 마니교의 이원론과 키케로의 회의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마니교의 이원론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선하고 우위에 있는 것으로 두었고, 키케로의 회의주의는 진리 자체에 대한 부정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획득하는 것인지부터 회의한다. 이처럼 상이한 두 관점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하는지, 그리고 나타난 그의 지복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론적 인식론을 기술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마니교의 이원론을 따른다. 그의 인식론의 많은 부분은 개념을 둘로 나누어 구분짓는다. 인식론의 내용 부분, 곧 진리란 인식가능한가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가능하다고 하였다. 키케로의 회의주의에 대하여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가 인식 가능한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신적 조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조명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어: 아우구스티누스, 인식론, 마니교, 키케로, 회의주의

### I. 서론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들 격변의 시대라고 한다. 과학, 산업기술의 빠른 진보로 인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단순한 삶의 편리함 뿐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등 여러 국면에서 격변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빠른 변화는 정신적인 혼돈을 야기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사조와 맞물려져서 절대적 가치 기준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주장을 하게 만들었다. 가치 기준이 모호해진 사회 속에서 인간은 정신적인 혼돈을 겪게 된다. 극단적 상대주의의 지배는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질서의 해체와 어우러지며 심지어 종교의 부패까지도 낳는다.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과 허무감이 생겨나고, 이는 감각적 향락주의와 기회주의를 낳고 극도의 불신과 이기주의를 팽배하게 한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가치 혼돈의 시기 중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의 로마제국이다.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개개인도 크게 고통받았다. 정치적으로도 탄력성을 잃고 전체적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개인에 대한 강압적 통제는 강화되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급속히 와해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정치, 경제적 쇠퇴와 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들은 필연적으로 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외침의 위협을 증대시켰다. 이런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은 역시 정신적인 혼돈이다. 정치, 경제의 쇠퇴는 사회적인 기반을 흔들리게 한

다. 결국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 극도의 불신과 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유사성으로 인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공감과 교훈을 얻도록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의 특이점은 그의 생애와 연관지어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상가의 생애를 모르면서도 그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칸트나 헤겔의 생애를 모르면서도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의 삶의 여정을 모르고서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은 그의 생애와 밀접히 연결되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그의 삶이 그의 사상이고, 그의 사상이 그의 삶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살펴볼 때에는 그의 삶의 경험과 함께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들에 대하여 실지로 그의 삶과 연관지어 분석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의 생애를 연구의 초기에 기술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경험이 어떻게 그의 이론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드러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적 인식론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의 삶의 경험인 마니교와의 만남과 키케로 문학의 기여와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 가운데 마니교와 키케로 문학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통합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물으려 한다. 이에 따라 먼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빠져던 키케로 문학과 마니교를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각각의 이론과 주장이 무엇이며, 어떤 점이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매료되게 하여 영향을 끼쳤는지 탐구한다. 그 탐구를 통해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그 영향과 기여를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 통합방식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양명수가 지은 『어거스틴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 II. 키케로의 회의주의와 마니교 이원론의 기여와 영향

### 1. 키케로의 회의주의

371년 가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배우게 되면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한다. 큰 도시였던 만큼 이곳에서 연극구경에 심취하여 세속적 정열에 휩싸이는 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에 한 여성과 만나, 15년의 동거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번잡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학업에 충실하게 임하였고,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생활 가운데 인간적 갈등과 공허감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적인 탐구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그 때 접하게 된 것이 키케로(Cicero)의 『호르텐시우스』(Hortensius)이다. 그 당시 수사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이 책을 반드시 읽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책을 접하게 되었지만, 이내 깊은 감명을 받으며 정신적이고 학문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386년 이 책을 시작으로 참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다. 19세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호르텐시우스』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주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행복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키케로가 『호르텐시우스』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다음과 같다. 행복은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에 있지 않

고 진리의 인식에 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진리를 밖에서 찾기보다는 안에서 찾아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진리 인식은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를 인도한 것은 애지로서 철학이다(주영훈, 2014:44). 키케로에 따르면 수사학은 말 잘하는 웅변가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아니다. 교양 학문(자연과학, 종교학, 철학, 법학, 역사학, 문학 등)에 정통해야 하며, 다음은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훌륭한 웅변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호르텐시우스』를 읽은 것이 첫 번째 회심에 해당한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미친 영향이 대단하다는 점을 그의 고백록 제3권 4장 7절에서 알 수 있다(Augustinus, 372:112).

저는 그때 어린 나이로 그런 자들 틈에 끼어 웅변 서적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웅변술에 뛰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 허영심의 즐거움에서 비롯하는 들뜨고 비난받을 만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통상 학습 과정에 따라 키케로라는 사람의 어떤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의 언변은 모두가 경탄하는 바였지만 그의 가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호르텐시우스』라는 제목으로 특히 철학에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제 성정을 아주 바꾸어 놓았고,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을 향하도록 변화시켰으며, 제 소원과 열망을 딛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품어왔던 저의 헛된 희망은 어느덧 모조리 시들해졌고 저의 마음은 이제 불멸의 지혜를 추구하는 욕구로 믿기지 않을 만큼 힘써이면서 당신께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것은 허에 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덧 열아홉 살이 되었고 아버지는 벌써 이태 전에 돌아가신 터여서 그런 기술은 어머니가 대주는 월사금으로 사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책을 잡은 것은 결코 허에 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고, 저를 설복시킨 것은 그 책의 언변이 아니라 그 책이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키케로는 소위 절충주의 철학자(eclectic philosopher)라고도 불린다. 그가 전통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을 절충하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충적이며 포괄적인 철학이 지향하는 것은 인류의 덕과 행복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카시키아쿰(Cassiciacum)에서도 교육을 위하여 채택했던 『투스쿨룸 대화』(Tusculan Disputation)에서 키케로의 철학과 도덕과 행복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키케로는 『예언에 관하여』 2권 1장에서 자신은 본인의 저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작품은 행복한 삶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권은 죽음에 대한 무관심을, 2권은 고통을 참는 방법을, 3권은 슬픔을 완화하는 방법을, 4권은 그 밖의 정신적 혼란을 완화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5권은 철학을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밝게 비추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빛을 발하는 이유는 덕이 그 자체로서 행복을 보장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투스쿨룸의 대화』의 가장 핵심적 주제는 철학은 인간에게 덕을 가르쳐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김용민, 2013:98). 인간사에 있어서 덕을 향한 길은 순탄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죽음, 고통, 영혼의 병인 슬픔, 공포, 환락, 욕망은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이를 제때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장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행복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간에게 있는 덕이 발휘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덕의 길에서 이탈할 때에, 그 때마다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은 철학이 바로 이 ‘도움의 손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리 추구’의 철학보다 ‘행복 추구’의 철학, 보다 구체적으로 ‘영혼 치료학으로서의 철학’(Philosophy as a medicine of the soul)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투스쿨룸의 대화』에서 그는 여러 헬레니즘 철학학파의 치료법을 언급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충주의적 입장에서 자신의 독특한 치료법을 제시한다. 그의 치료법은 각 개인이 철학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가 철학의 의사(self-doctor of the soul)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C. Nussbaum, 1994). 그에 따르면 개인이 겪는 불행은 너무나 다양한 양상을 지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성격과 처한 상황에 적합한 ‘개별적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 키케로는 특히 영혼의 병의 원인은 자발적인 믿음과 사회적인 규범에의 동조라고 지적하면서 오직 철학만이 영혼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철학을 배워 스스로가 영혼의 의사가 될 때 정신적 행복은 물론이요 육체적 건강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키케로가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서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학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철학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덕만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스토아학파의 입장에 동조한다. 이를 『투스쿨룸의 대화』 5권 35-36에서 볼 수 있다. “덕을 지닌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되며, 덕만이 행복의 원천임을 인정할 때 적을 지닌 사람은 동시에 ‘최상으로’ 행복하게 된다.” 철학과 덕, 행복의 관계에 대하여 키케로는 『투스쿨룸의 대화』에서 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간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은 덕을 소유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덕을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고, 덕과 다른 길로 갈 때에 ‘도움의 손길’이 되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교육이 곧 영혼의 치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철학의 교육이 영혼을 치료하여 행복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교육이 영혼의 치료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면, 『투스쿨룸의 대화』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교육과 관련하여 키케로의 인식론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키케로의 인식론은 신아카데미의 입장을 따른다. 인식론에 대한 키케로의 입장은 『루쿨루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진리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카르네아데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그가 진리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가 없어도 행동할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인상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루쿨루스』의 후반 앞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스토아학파의 인식론을 공격하여 진리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철학사를 조망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학파들의 진리에 대한 주장이 아직도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으로, 진리가 획득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진리의 기준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존재해왔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원전 1세기경 끝난 헬레니즘 철학 시대의 바깥에 위치한 키케로는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부활, 신·구아카데미의 쇠퇴,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쇠퇴 등에 힘입어, 기존의 철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지식을 탐구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카데미의 특징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카데미의 특징은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진리에 가장 접근한 것처럼 보이는 결론을 인정하고, 논쟁들을 비교하고, 어떤 의견을 위해서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함이 없이 탐구자의 판단에 완전히 자유롭게 맡겨 놓는 것이다.”(김용민, 2008:120).

키케로의 인식론이 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그가 학문을 펼치던 시대적 상황과 그의 절충주의적 성격이 맞물려진 것과 같다. 전통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의 사이에서 그는 각양각색의 상이한 이론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진리가 이렇게 상이한 관점에서 이야기된다면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었던 것이다. 철학을 통해 덕을 소유하고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가 말하는 덕

이란 무엇이며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여기에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카르네아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그가 앞서 말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도 모호하게 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이 인식론적으로 실제적인 원칙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학문적 회의론에 빠지게 하였다.

## 2. 마니교의 이원론

『호르텐시우스』를 통해 애지에 대한 열정이 강해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애욕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애지의 열망이 우세하기는 했으나, 성경에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에게 절실한 것은 영적인 것과 선악의 문제였다. 그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물질의 형상이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점이었다(이석우, 1995:57). 또 하나의 고민은 악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어떻게 악을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만들어 놓은 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이를 역설이라 생각했고 수궁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마니교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듯하였다. 더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범하고 있는 악한 행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장치까지 마련해주었다.

마니교(Manichaeism)는 서기 3세기 중엽 바빌론의 마니(Mani)에 의하여 창시되고 페르시아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급속하게 퍼진 종교이다. 조로아스터교(Zoroaster)에서 유래한 것으로,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이원론에 기초하는 영지주의적 종교의 일파이다. 마니는 스스로를 하늘로부터 인간세계에 보내진 사자로 불렀고, 조로아스터, 석가, 예수로 이어져 내려오는 계시의 마지막 계승자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신만이 보편적으로 하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니는 엄격한 이원주의를 가르쳤는데, 빛과 어둠, 선과 악, 영체와 물체를 대립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들을 실제로 파악하였다. 선과 악의 본질은 원초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서로 분리되며 반대되는 원리이다. 다만 악의 원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 세상은 빛으로 대표되는 선한 영적 세력과 어둠으로 상징되는 악한 물질세계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따라서 마니교는 물질적인 것을 배격하고 철저히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밖에서 들어오는 물욕을 억제하고 안에서 나오는 정신의 빛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금욕주의를 강요하였다.

마니는 시대의 흐름을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대는 인간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의 시대로, 선과 악이 철저히 나뉘어 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로, 어둠이 빛을 침범하여 빛의 세계가 어둠에 오염된 시기이다. 세 번째 시대는 진리와 빛이 최종 승리를 거두고 오염된 빛의 세계를 회복하여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초기와 같은 시대로 변화되는 시기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전쟁과 환란 가운데, 사회는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다. 이 때에 세상의 유일한 빛인 예수가 재림하여 죄인들로부터 의인들을 구별할 것이다. 이 메시아는 물질로 대표되는 악을 가두고 구원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후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고 세상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창조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한다. 마니교는 행위를 통한 율법적 구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존재로 보지만 동시에 망각의 존재로 본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였다. 이를 다시 생각나게 해 주는 지식은 선이다. 마니교의 내세관은 불교와 같은 윤회사상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죽은 후에 의인은 천국으로 옮겨지지만, 욕의 것을 즐기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벌을 받는다. 다시 물질세계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것이 곧 형벌인 것이다. 고로 마니교에서 최

고의 덕은 세상과 단절된 삶이다.

마니교도들은 크게 선택된 자와 듣는 자 두 부류로 구분된다. 선택된 자들은 다시 4등급으로 나뉘어서 단계에 따라 정도가 조금씩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공통된 것은 입, 손, 가슴을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일을 하도록 구별하였다. 입으로는 부정한 음식을 삼가고 진리만 말하였다. 손으로는 상해와 살인 그리고 전쟁을 삼갈 뿐 아니라 물질세계의 재산의 축적을 위한 육체적 노동을 멀리하였다. 가슴을 정결케 하기 위해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마니교에 빠져들게 된 것은 19세 정도였으며 수사학공부도 접어두게 되었다. 이 때는 그가 『호르텐시우스』를 통해 사물에 대한 이성적 탐구욕이 싹튼 시기여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가 필요했다. 그의 관심을 끈 마니교의 주장은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악의 법칙에 의해 사로잡힌 선이 더 큰 선이 되어 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악이원론에 따르면 악은 분명 다른 실체이므로 그 근본 원인은 신에게까지 구해지며 결과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니교로의 전향은 수사학적 변론에도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마니교는 그로 하여금 지적, 종교적 해방감을 갖게 하였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십범주』(Ten Categories)를 읽은 것도 이 무렵이다. 이 책은 인간의 본질과 실체, 그에 따른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었는데 당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이석우, 1995:59). 사람의 형상과 기질, 크기, 인간관계, 시공간에서의 인간의 위상 등 사물의 범주를 9가지(질, 양, 관계, 활동, 감정, 장소, 시간, 위치, 의복)로 나누어 범주적으로 설명하는 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물 파악에 매우 간편한 기준을 설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모든 사물의 실존 형태가 십범주 안에 있다고 믿었고, 결국 절대자인 하나님도 가변적 십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였다.

마니교는 금욕적이고 영적인 생활을 가르치고 주장하였다. 그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 금욕적이고 영적인 요소는 마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그의 영육 구분의 경건한 삶, 절대적인 아유에 대한 태도를 키케로의 가르침에 연유한다고 보기도 한다. 키케로는 관능의 탐닉이 철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만남이 함께 아우구스티누스의 금욕적 생활을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관념적인 규례와 가르침은 때로 격렬한 자기분열을 겪게 했다. 그럴수록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의 가르침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는데, 마니교를 떠났을 때에도 그는 마니교적 이분법에 도태되어 있었다. 그 때도 그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성적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끌리게 한다’고 생각하려 했다. 고백록 5권의 10장 18절을 보면,

...아직도 저에게는 죄를 짓는 것은 저희 자신이 아니고 뭘지 모르지만 저희 안에 있는 다른 본성이 죄를 짓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탓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제 오만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무슨 악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제가 당신께 죄지었으니 당신께서 저를 낫게 해 주십사 비는 뜻에서 “제가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를 두고는 변명을 하기 좋아하고, 뭘지 모르지만 “저와 더불어 있으면서도 제가 아닌 다른 무엇”에다 탓을 돌리기 좋아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젊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에 입문하며 이성을 모토로 삼아 자신의 종교를 재단하였다. 이는 그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신봉했기에 ‘고전 세계’에 속했다는 것을 암

시한다(윤병은, 1993:241). ‘고전 세계’에 속한 그에게 신은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하던 존재였다. 마니교 역시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마니교 신자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밖에 제시하지 못한다며 가톨릭 신자들을 비판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마니교는 그의 삶과 지식을 향한 열망 사이의 괴리를 줄여주었다. 그 괴리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경험한 죄책감을 ‘자신은 아니지만 항상 함께 있으며 악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는 어떤 모종의 존재’에 돌릴 수 있게 함으로 그를 매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실재인 신을 선, 보이는 물체를 악으로 구별 지어 생각함으로 선한 것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종교였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인 신에 대하여도 유물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졌던 영적이 것과 선악의 문제,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을 가르쳐주었다. 이에 따라 그가 마니교에 빠져든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가지게 된 의문에 대하여 기독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빠져든 이유는, 그것이 진리를 설명해주는 가장 근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차츰 그 설명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이성으로 온 우주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마니교의 주장은 스스로를 매어두는 것 같았다. 자연법칙만 나열하고 경건함과 영성이 없는 마니교의 가르침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니교의 주요인 파우스투스를 만나면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주변인의 의견을 따라 파우스투스를 만나보았지만 그와의 만남은 실망스러웠고, 아우구스티누스는 9년간의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적 인식론

키케로의 회의주의는 인식론적으로 진리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상이한 이론들이 나올 수 없다는 전제로 하여, 진리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앎을 통해 행복에 도달하는데 그 앎과 행복이란 무엇인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마니교의 이원론에서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여, 인간 이성을 우위에 두었다. 이원론과 함께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져온 마니교는 모든 것은 물체로 표현되며 인간의 이성으로 온 우주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가지의 이론을 같은 시기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응은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분석함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관계를 드러낸 그의 가장 저명한 말은 ‘믿음은 이성에 선행한다’(credo ut intelligam)이다. 인간 이성을 어느 위치에 두었느냐, 그것이 두 상이한 이론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합 방식을 드러낼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의 최종 단계인 ‘신을 봄’(visio dei)에 이르기까지, 의지로 인한 ‘믿음’이 아닌 지성에 의한 ‘앎’을 궁극 목표로 세운 철학자다(양명수, 1999:15). 인간의 인식론적 노력의 일직선상에 이성과 신앙을 함께 둠으로써, 이성과 신앙의 통일을 이룬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진리란 불멸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로써 진리는 물질이 아니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순수한 앎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감각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느낌은 변하기 때문이다. 한편 감각은 공간에 있어서 처음부터 ‘밖’에 있는 것이므로, 통일된 정신의 내면 집중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를 통해 안과 밖으로 나누는 구조가 형성된다. 속의 원리란 이러한 존재구조 속에서 인식의 눈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인식의 대상을 감각의 세계와 예지의 세계로 나누었다. 각각의 인식 주체는 인간의 내면성이다. 감각 기관은 외부의 것을 느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느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보다 우월하므로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느낌의 주체는 영혼이다. 예지의 세계의 인식 주체는 감각의 세계보다 더욱 깊으므로 그 또한 더욱 깊은 영혼이다. 비가지적 깊은 앎의 세계를 보는 인식 주체는 영혼인데 이는 인간의 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느낌 곧 감각과 구별되는 깊은 앎의 대상은 영원한 바탕, 지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이다. 이것들은 모두 감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에 미리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깊은 앎의 궁극적인 대상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다. 이는 깊은 앎의 대상의 총체이며 여기에서 깊은 앎의 계층은 절정을 이룬다. 인식의 행위는 사람 내면에서 발생하며 내면이 깊어질수록 인식은 더욱 밝고 뚜렷해진다. 그러므로 확실한 진리 인식을 추구하는 인식 주체의 방향은 '속으로'이다.

사람의 내면에 미리 주어졌기 때문에 진리 인식에는 자아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를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통해서 그가 지금껏 찾고자 노력한 확실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코자 하였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면 진리를 인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진리 인식의 출발점이자 유일한 가능성이 된다. 인간의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고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은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진리 인식의 전제조건은 인간 영혼이 더 이상 외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정신적 세계인 내면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영혼의 내면의 인식, 즉 자기 내면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진리 곧 하나님께 도달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코자 한다. 이에 따라 자기인식은 절대적인 진리 인식의 토대가 된다. 그는 자기 인식 안에는 진리 인식이 가능한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이야기한다. 먼저는 대상이 정신 그 자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는 인간이 지각과 추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으면서 지성을 비추는 빛이다. 내면성이야말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는 근거이다. 진리가 인간의 내심에 자리잡고는 있지만, 신의 구체적인 사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정신은 인식이 존재하는 대상 자체와 일치하도록 파악해야만 한다. 인식행위는 자기 인식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의 그 안에 있는 주체를 파악하고 자신으로 완전히 귀환함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자아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인식 안에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 진리인식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인간 스스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인식을 통해 모든 회의적인 의심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키케로의 인식론적 회의주의는 앎의 불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 역시 앎의 확실함이다. 자기 존재의 확실함은 앎의 확실함을 위한 전제이다. 사실상 자기 존재의 확실함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더 이상 증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는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모두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존재의 확실함과 의식의 확실함으로부터 인식의 질서를 새움으로써, 영원한 진리에의 탐구로 나아간다.

회의주의는 확실한 지식을 부인하고 개연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세계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원인을 자연과 이성 안에서 삶의 도리를 발견하려 했던 고전의 지식의 이성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지식의 이상으로 놓을 때, 진리 파악에 대한 회의는 필연



적으로 생겨난다. 이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을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감각은 지식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회의주의의 문제는 지식이 될 수 없는 감각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감각 능력을 믿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감각은 지식이 아니지만 지식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감각은 지식의 재료가 된다. 감각 세계는 감각 기관에 인상되어, 영혼의 활동을 불러일으킨 다음, 이성으로 향하여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의식하고 찾아서 학문적 인식을 낳도록 자극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모든 의식 활동과 경험을 정당히 평가해서 감각적인 삶과 생각하는 삶, 영과 육의 분리를 극복하고 인격의 전체성에 도달한다. “영혼과 육은 모두 인간의 구성부분이다. 이들이 합쳐져야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의미를 지닌다. 육이라고 해서 동물적인 것은 아니며 그 모두가 각각 살아 있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 감각과 지성의 설명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로 그가 다져왔던 이원론을 극복한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모두 인간이다. 다만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고 둘의 관계를 통해 온전한 하나의 삶, 곧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마니교의 이원론의 영향이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 곧 종교적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그 이원론이다. 무엇이든지 모호한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예리하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원론이 아우구스티누스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이 이원론을 통합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진리의 기능이다.

하나님을 진리로 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은 ‘존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에 있어서 참 존재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인식의 근원이자 최종 대상이다.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면서 인식의 근거이다. 하나님은 앎과 관련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앎의 빛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은 앎의 빛이므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고 인식의 최종 목표이다. 동시에 그 분은 존재 충만의 목표이다. 계층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인식론적인 노력은, 진리와 하나가 되는 존재 충만의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진리와 현실의 가능 근거요, 의미 근거이며, 존재 근거이기 때문에 모든 인식 진리는 존재 진리에 참여함 바로 그것이다.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성의 신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을 이성 있는 영혼이라 부른다. 이성이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앎 곧 지식을 산출하는 이성은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이성은 사람 인식의 유일한 주체이다. 자연상태에서 이성은 참지식을 어렵게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앎을 갖는 것은 의지가 전환된 후에 가능하다.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영원한 이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성이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성 또한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앎과 진리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리고 모든 이성은 조명을 받아 앎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성(ratio)이란 영혼이 인식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이다. 이성은 인식 주체의 근본 능력으로서의 추론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곧 존재론적 이성의 의미, 정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파악하고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신구조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의 이성은 내적이고 은밀한 힘으로써, 내적 감각을 판단하여 지식을 생산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성을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나누고 있다. 열등한 이성은 외부에서 들어와 영혼에 형성된 내적 감각을 판단하는 기능이고, 우월한 이성은 예지의 세계를 보는 내적인 눈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하나의 이성에 두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

간 정신의 본질은 하나이나 다만 그 기능에 있어서 둘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이성은 사람에게 이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본 사유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람의 근본 사유, 곧 이성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고, 하나님의 근본 사유요, 사람의 존재 근거를 영원한 이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공통 부분을 형성하였다. 추구하는 이성은 마침내 관조에 이른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앎이 형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진리 인식을 두 인격의 만남으로 해석한 것이다. 진리 추구는 중립적인 이성만의 작용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더 이상 이성만이 아닌, 인격 총체의 참여를 요구한다. 인식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며, 윤리의 문제가 된다. 자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조명이 있고, 모든 앎은 하나님의 조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의지의 전환 없는 자연 이성은 희미한 진리밖에는 볼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은 인식론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여 이제 진리 인식은 이성과 이데아와의 인식론적 결합이 아니고 인격인 인간과 인격인 하나님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 이는 두 인격의 만남을 의미하지 동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진리 인식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인격임에 따라, 인식은 지성만의 작업이 아닌 의지와 사랑의 문제가 되며, 곧 실존 전체가 참여하는 문제가 된다.

먼저, 인식 주체의 인격성으로부터 자유와 책임의 의미가 부각된다. 하나님은 진리 인식을 돕는다. 하나님은 인식의 빛으로 그 빛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개입은 없다. 진리 인식은 인간의 자유요, 바꾸어 말해 책임의 영역이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도우신다. 그러나 앎을 떠먹여주지는 않는다. 진리 인식은 유무의 문제라기보다 정도의 문제다. 자연 이성의 상태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진리에 대한 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열등한 진리인 지식과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참다운 앎, 곧 지혜는 불가능하다. 이는 선악의 문제요, 윤리의 문제이자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격 존재로서 인간은 자유와 책임 하에 의지의 전환을 꾀함으로 참다운 앎 곧 진리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내적 인식의 정도는 하나님의 조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용 능력에 달려 있다. 이성의 수용능력은 선하고 악한 의지의 문제이자 윤리의 문제이다.

또한 진리 인식의 객체가 인격이라는 점에서 진리 인식은 곧 전 존재의 참여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체험한 진리는 인격적 진리이다. 인격적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참여하지 않고는 앎이 불가능하다. 조명은 인간의 빛이신 말씀에의 참여이다. 진리 인식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식이다. 인간의 인격이 존재, 앎,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실존 전체의 진리 참여는 곧 앎 뿐만이 아닌 존재와 의지의 참여를 말한다. 영원한 이성을 보는 것은 지성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성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순수해져 진리와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앎은 본질적으로 이성의 독자적 산물이 아니라 의지 즉 행함과 의의 연합적 산물이다. 의지의 타락 즉 죄로 인해 무능력하게 된 이성의 무지를 치유하는 길은 의지에 달려있다. 행함과 의지와 사랑, 이것들은 모두 신앙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믿음은 이성에 선행한다'(credo ut intelligam)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이성은 원래 진리를 알도록 되어있다.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성이 흐려졌으므로 진리를 보려면 다시 깨끗해져야 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수는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려는 자는 먼저 믿어야 한

다. 진정한 앎은 신앙이 선행되어야 한다. 앎은 신앙의 삶이다.

둘째, 믿음의 끝은 앎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궁극 목표는 믿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요, 아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은 분명 더 높은 차원이다. 신앙은 이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다. 믿음은 보는 것의 전 단계이다. 앎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며 그 때 우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러나 신앙은 궁극 목표가 될 수 없고, 진리를 보는 것이 인격 전체의 목표이다. 신앙은 의지의 작용이고, 바라보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다. 추구는 신앙이 하지만, 발전은 이성이 한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비육적이며 변치 않은 것에 대한 앎을 소유하고 관조에 다다르기 위해서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로 대립적인 요소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사유의 통일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의 내면에는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관심과 의지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의 요소가 언제나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대립적 요소도 그의 인식론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가 부각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과 사랑 곧 의지였다. 그러나 이성과 진리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다. 앎은 신앙 안에서 완성되지만 신앙은 앎이 되어야 한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으며,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앎을 추구하는 믿음은 믿음을 추구하는 앎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그에게 있어서 이성에 의한 생각과 의지에 의한 신앙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신국론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하나님)에게는 '있음'과 '삶'이 일치한다. 그래서 살지 않으며, 있을 수는 없다. 그분에게는 '삶'과 '앎'이 일치한다. 그래서 알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분에게는 '앎'과 '축복'이 같은 것이어서, 복되지 않은 채 알 수 없다. 그리하여 그분에게 있어서 삶과 앎과 축복은 곧 있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삶의 일치, 삶과 앎의 일치, 앎과 축복의 일치의 진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소망이다. 앎과 행함의 일치된 상태를 곧 지복의 삶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신앙의 우위로 행복한 삶을 향한 방법을 가르쳤다.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무의미한 것으로 두고,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신앙으로 시작한다고 함으로써, 의지의 우선성을 구축하고, 관조를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이성과 신앙의 통일을 이야기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론의 많은 부분을 두 가지로 예리하게 구분하여 정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타락 곧 죄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 구분을 극복하고 하나로 합일을 이루는 것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마니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플라톤적 사고방식으로, 둘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구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여 완전한 하나의 합일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니교의 이원론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합방식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절충이요, 목적으로는 변증법적 지양이다. 마니교는 인간의 이성을 높은 위치에 두었다.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하는 방식을 택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신앙 곧 의지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든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든지 믿음과 함께할 때에 진리는 인식된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유일한 실재이신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마니교보다 먼저 접하게 되었던 회의주의는 인간 이성으로 진리는 인식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전에 절대적 진리 자체를 부정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회의주의와의 싸움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극복한다. 그 내용의 깊이에 따라 지식과 더 깊은 지식, 곧 진리로 나누어 모든 인간에게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인식의 출발로 두어, 인간은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인식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것 또한 가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키케로의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있어서는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이성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던 마니교와 인간 이성으로 진리는 인식될 수 없으며,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던 키케로의 회의주의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둘을 절묘하게 섞음으로 그만의 이론체계를 구성한다. 그것이 바로 지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식론이다. 진리의 인식은 참된 행복, 곧 지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보다 위대한 대상,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대상으로 손을 뻗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에 대한 인식은 평화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인식의 목적은 지복 하나뿐이다. 현명한 자만이 행복할 수 있으며 진리의 인식을 요구한다. 진리는 과연 획득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도 갖지 않은 사람이 예지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론한다. 그는 소유하려는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진리를 찾고 있으나 아직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이며, 그 방법으로 조명설을 제시하고 있다.

#### IV. 결론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현 시대에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런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했던 시기와 현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비교해볼 때에, 그의 이론을 재검토해보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의 활동시기와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사회적 혼돈의 시기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특히나 그의 사상에 그의 삶이 녹아내려있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다. 그의 사상이 곧 그의 삶이요, 삶이 곧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로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고 그것을 다시 살아낸 이 학자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그가 참된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였을 시기의 이론들에 대한 점검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의 사상과 삶을 깊게 연관지어 살펴보지 못하였다. 연구의 흐름을 위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초기에 빠졌던 종교인 마니교와 그를 철학에 입문시킨 키케로로부터 받은 영향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통합하였는지 드러내려 하였다. 특히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마니교의 이원론과 키케로의 회의주의는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통합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는지 검토하였다.

절충주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카르네아테스를 따라 진리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진리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 없이도 행동할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인상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철학을 통해 행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진리란 없고, 존재하지 않는 진리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키케로식 회의주의는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진리에 근접한 결론을 인정한다. 논쟁들을 비교하고, 의견을 위한 근거들을 모두 드러내고, 권위를 주장함이 없이 탐구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마니교의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를 정교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영은 철저하게 선한 것, 육은 악한 것으로 취급된다. 선과 악의 본질은 원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서로 분리되며 반대되는 원리이다. 악의 원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이 세상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세상은 곧 빛으로 대표되는 선한 영적 세력과 어둠으로 상징되는 악한 물질세계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 모든 것(심지어는 신까지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두 이론을 비슷한 시기에 받아들이게 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둘을 절충하고 지양하여,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식론을 주장한다. 진리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키케로의 회의주의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니교와 같이 인간 이성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마니교의 인식론과 절충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성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성애 앞서 믿음이 선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조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합일을 이루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인식론의 목표이다. 더 궁극적 목표는 합일을 통한 지복의 달성이다.

## 참고 문헌

- 김창환(1998). 아우구스티누스, 연세대학교 교육철학연구회(편), 위대한 교육 사상가들 I, 서울: 교육과학사
- 양명수(1999). 어거스틴의 인식론, 서울: 한들출판사.
- 이석우(1999).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민음사.
- 주영흠(2007).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주영흠(2014).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교육, 서울: 그리심.
- 고미숙, 홍경희(2011).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과 교육사상, **인문학논총**, 313-341.
- 김용민(2013). 행복의 철학과 영혼치료학으로서의 철학의 위상정립을 위한 키케로의 시도, **정치사상연구**, 9(2), 97-128.
- 김용민(2008). 키케로에 있어서 수사학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17(1).
- 김용민(2009). 키케로와 헬레니즘 정치철학, **한국정치연구**, 18(2).
- 문정기(2008).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 157-181.
- 김영철(2010). 아우구스티누스 진리인식의 토대로서의 자기인식, **철학논총**, 159-175.
- 윤병운(1993).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의 신앙과 이성의 관계, **철학탐구**, 11(10), 241-256.
- A. Augustinus.(2004). 성염 역, 신국론, 서울: 분도출판사.
- A. Augustinus.(2016). 성염 역, 고백록, 서울: 분도출판사.
- Cicero(2014). 김남우 역, 투스쿨룸 대화, 서울: 아카넷.
- F. Copleston(1988). 박영도 역 중세철학사, 서울: 서광사.